

프로야구 올스타전 출전 베스트24 뽑는다

구단 추천 120명 후보 중 드림·나눔 팀 나눠 팀당 12명씩 총 24명 팬·선수단 투표 통해 선정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에 초대될 선수를 뽑는 팬투표가 7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7월 16일 서울 고척 스키아돔에서 열리는 2016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후보를 확정하고 7일부터 팬 투표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올스타전은 KBO 리그 10개 구단을 드림 올스타(두산, 삼성 SK, 롯데, kt)와 나눔 올스타(KC, 넥센, 한화, KIA, LG)로 나눠 진행된다.

각 구단으로부터 추천 받은 총 120명의 후보 중 드림 나눔 각 팀 당 12명씩 총 24명의 베스트 선수가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올스타 팬 투표는 7일 오후 2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25일간 포털사이트(www.daum.net)과 네이버(www.naver.com),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KBO 앱'과 'KBO STATS 앱'을 통해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두 앱 중 하루에 한 곳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KBO 앱과 KBO STATS 앱에서 각각 투표를 가능했다. 투표수는 개별 집계된다.

KBO 리그 현역선수 명단에 등록된 10개

구단 감독과 코치,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수단 투표는 6월 중 5개 구장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 이승엽과 한화 조인성은 이번 120명의 후보선수 중 최다인 개인통산 10번째 베스트 선정에 도전한다.

지난해 팬 투표에서 153만47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로 베스트12에 선정된 이승엽은 올 시즌 다시 한번 최고 인기선수 등극을 노린다.

2일 기준 41세8개월로 120명의 후보 중 최고령 선수인 조인성은 역대 최고령 베스트 선발을 노린다.

중전 최고령 베스트는 지난해 나눔 올스타 지명타자로 뽑힌 NC 이호준이다. 당시 그는 올스타전 개최일 기준 39세5개월10일이었다.

조인성이 이번 올스타전에 출전하게 될 경우 베스트와 감독추천, 투수, 타자를 통틀어 역대 최고령 출전 선수가 된다.

여기에 홈드 1위를 달리고 있는 두산 정재훈, 세이브 2위 넥센 김세현, 타율과 최다안타 1위 롯데 김문호, 홈런 1위 두산 김재환 등 올 시즌에 개인 타이틀 주요 부문 상위권에 오른 늦깎이 선수들의 선발



지난해 팬 투표에서 153만47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로 베스트12에 선정된 이승엽은 올 시즌 다시 한번 최고 인기선수 등극을 노린다.

여부도 관심이 있다.

KBO는 매주 월요일 인터넷과 모바일 투표를 합성한 팬 투표 중간집계 현황을 발표한다.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7대3 비율로 환산한 최종 집계 결과는 다음달 4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투표 종료 후 참여자 중 추첨을 통

해 2016 KBO 올스타전 입장권(30명·1인2매)과 (주)SSNI에서 제작하는 올스타 유니폼 레플리카(30명·팀 선택 가능)를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다음달 4일 KBO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김민근기자



전북체육중, 전국소년체전 17개 메달 획득

전북체육중이 제45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신홍 체육명문 중학교의 입지를 다졌다.

이번 소년체전에 54명의 선수를 출전시킨 전북체육중은 체조의 조원빈 전북선수단 중 유일한 2관왕을 차지하는가 하면 유도의 정아현 사이클의 이슬 태권도 윤정호, 근대5종 형태국 선수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했다.

이러한 좋은 성적의 바탕에는 과거처럼 단순한 훈련 방식에서 탈피해 과학적인 훈련 방법과 휴식을 취한 것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기자

익산 국제여자소프트볼·전국볼링대회 개최

제5회 동아시아컵 국제여자소프트볼대회와 제18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가 익산시에서 개최된다.

대한소프트볼협회(회장 최철남)가 주관하는 제5회 동아시아컵 국제여자소프트볼대회는 8일부터 13일까지 익산 리틀야구장에서 개최된다. 2012년 대구에서 제1회 동아시아컵 국제여자소프트볼대회 개최 후 2번째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대회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4개국 100여명이 참여하여 친목과 우의를 다지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선 풀리그를 거쳐 우승팀을 가린다.

한국 소프트볼대표팀은 작년 대만에서 열린 제4회 동아시아컵 국제소프트볼대회에서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대표팀은 강화된 전력과 홈그라운드 이점을 안고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8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가 8일부터 25일까지 한성볼링장 및 남부탑볼링장에서 열린다. 140개 팀 1,500여명의 선수가 학교의 명예를 걸고 승부를 펼친다.

시에 따르면 양 대회 선수단 1,800여명이 경기가 진행되는 22일간 숙식 숙박을 이용하면 8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아시아 최대 규모 도로사이클 대회 개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도로 사이클 축제인 'Tour De Korea 2016'이 오는 6일과 7일 양일간 군산월명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이 대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고 트루드코리아 조직위 및 대한사이클연맹 등이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위와 수준을 자랑하는 UCI Asia Tour 2.1 Class 등급의 국제 사이클 대회이다.

경기방식은 각 구간별 우승자를 가려 누계점수로 시상하는 엘리트 분야 경주운영으로 500여명이 8일간 1,229km 내외의 도로를 달리게 된다.

대회기간은 6월 5일 부산을 시작으로 구미, 군산, 대전, 아산, 충주, 서울을 거쳐 오는 12일 서울 올림픽광장에서 최종 마무리된다.

군산일정은 6, 7일 1박2일로 6일 서수-원파-대야-개정면을 통과해 1박을 한 후 7일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슈틸리케호, 스페인과 국가대표 평가전 '20년 만의 참패'

1-6 대패...소속팀 자리 못 잡는 해외파 경기력 저하 '심각'

슈틸리케호가 스페인을 맞아 예상보다 훨씬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시울 앞으로 다가온 체코전에 대한 불안감을 자아냈다. 울리 슈틸리케(62·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일 오후 11시30분(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1-6으로 대패했다.

지난해 A매치 20경기에서 16승3무1패의 호성적을 거뒀던 슈틸리케호는 상승세를 등에 업고 야심차게 유럽 원정길에 올랐지만 돌아온 것은 기록적인 참패였다.

한국이 A매치에서 6골을 내준 건 1996년 12월16일 이란과의 아시아컵 8강전 2-6 패배 이후 20년 만이다.

한국 축구의 병후한 현주소를 확인한 경기였다. 특히 소속팀에서 자리를 못 잡는 해외파들의 경기력 저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훈련까지 자처하며 의지를 불태웠지만 몸을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믿었던 손흥민(24·토트넘)은 존재감을 잃었고 기성용(27·스완지 시티)의 날카로운 패스로 자취를 감췄다.

/김민근기자

그러나 후반 교체 투입된 석현준(25·FC 포르투)이 제몫을 했을 뿐이다.

오려려 꾸준히 소속팀 경기를 소화한 K리거들의 분전이 돋보였다.

이미 승패가 가려진 탓도 있었지만 이재성(24·전북)과 주세종(26·서울)이 그라운드에서 뛰어들어 한국 경기력이 활활해졌다. 주세종은 과감한 중거리 슈트로 A매치 데뷔골까지 터뜨렸다.

슈틸리케 감독 부임 후 첫 유럽 상대 평가전에서 대패를 맞은 한국은 오는 5일 체코와 맞붙는다. 제3국에서 열렸던 스페인 전과는 달리 체코전은 프라하에서 열리게 돼 진짜 원정 분위기를 느끼게 될 전망이다.

체코의 전력은 스페인보다 다소 떨어진다.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대인 것이 분명하다.

스페인전 대패로 선수단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아 있어 자칫 별다른 소득 없이 상처만 입을 수도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정신적으로 다시 닫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극복하지 못한다면 오늘 같은 참패가 일어날 수 있기에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리 슈틸리케(62·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일 오후 11시30분(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1-6으로 대패했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달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